

일본연구소 5회 연구집담회 9월23일 수요일 오후 4시

발표자: 이은경(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토론자: 강태웅(광운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장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21호

근대 일본 여성 그리스도인과 ‘생활’-하니 모토코와 『부인지우』를 중심으로

발표내용:

박사논문을 간단하게 발표. 하니 모토코의 삶에 관한 사진을 설명하면서 시작. 그러나 하니 모토코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삶과 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일본 근대와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차니티의 수용이나, 생활합리화 운동등이 그렇다. 이은경 교수는 하니 모토코가 메이지 여학교 기숙사 생활 가운데 생활 문제에 눈을 떴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가정지우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류가정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위해 가계부를 창안하고,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가정행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교 정신과 생활개선이라는 그녀의 사고가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여성지우라는 잡지를 통해 여성들의 수양과 수신을 위한 여성잡지를 만들어 일본 여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활합리화 운동이 15년 전쟁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은경 교수는 본 연구에서 하니 모토코의 생활합리화 운동의 내용을, 근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교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내에서는 주로 여성 저널리스트, 교육자 등으로 알려져 있고, 생활과 관련한 계몽운동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니 모토코를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살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당대에 발행된 잡지의 원문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용적이고 몰역사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언설을 살펴봄으로서 하니 모토코라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근대 일본인의 실제 생활과 고민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근대 일본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토론자

1. 하니 모토가 이야기하는 생활, 합리화하는 과정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구화의 과정에서 중심이 가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인지? 당시 발행되던 다른 잡지들, 남성들이 낸 가정 잡지와 하니 모토코의 잡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써주면 좋지 않을까? 중앙공론이라던지, 태양이라던지에서도 부인 이야기 특집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이야기와 다른 것들이 있는지? 다른이야기인데 제목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표기하는데 기독교와 다른 의미가 있는가?
2. 입센의 연극이 당시 새로운 여성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메이지 국가 이후 강조되었던 양치현모상과 대립구도로 가서 부인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당시의 용어들을 직접 써주면 시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 하니 모토코의 주장을 근대화론, 근대성의 논의로 본다면, 그러한 논의들이 나중에 국가 총동원이나 국가를 위해서의 논리로 그대로 이어지는. 기독교인의 전쟁책임으로 보는 것보다는 요즘 많이 논의되는 모더니즘과 파시즘과의 연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4.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책임을 묻는다면, 마지막에 하니 모토코의 기독교 사상의 본질이랄

까요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 사상을 변화시켰는지, 그렇다면 전쟁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5. 일본 2~30년대 생활연구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런 논의들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

6. 그 잡지에 실린 사상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잡지 이름을 제목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잡지 이름을 넣으려면 잡지 자체에 대한 분석 있어야 하지 않나? 부인지정을 통한 하니 모토코의 생활세계의 재고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대답: 부족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크리스차니티 받아들이기 때 일본에서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그 기독교는 역사적인 용어가 돼서 기리시탄이라고, 그리스도교가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와 구별하기 위해 썼음. 독창적인 기독교 해석을 바탕으로 한 하니 모토코의 기독교라서 기독교와는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싶었음.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녀의 논의가 독특하나에 대해서는 당대의 논의들과 비교가 소홀했던 점 인정. 횡적인 부분 많이 더 추가하겠습니다.

코멘트:

남기정 교수님: 전후 평화주의자였던 하니 모토코의 사위의 장모에 대한 평가는? 조선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식민지 조선이나 전후 한국에서 하니 모토코의 영향력이랄까가 있는지?

한영혜 교수님: 전후에 침묵했던 하니 모토코 특이하다고 생각되. 전후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해야하는 시기에, 침묵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모토코의 활동과 당시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흐름하고 연결이 될 만한게 있는지?

대답: 전공이 다르니까 재밌긴 재밌네요. 사위와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랄까요. 종교문제나 사상문제에서는 평행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관계였습니다. 조선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조금 잘하자라는 결론 정도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만 부족하고 보편신의 자녀로서 조선을 상대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랄까요. 그러나 깊은 세계관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민족 자체를 신과의 관계에서 사고했기 때문이지요. 당대 다른 혁신계 움직임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추후 보강해야 할 작업일 듯함. 침묵은 아주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정도 언급하고 있음. 전쟁이 끝난 당시 고향이어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에도.